

근대 전환기 한국 ‘工藝(공예)’ 용어의 쓰임과 의미 변화에 대한 고찰

노유니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연구교수
Corresponding Author: junias00@snu.ac.kr

국문초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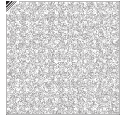
이 글에서는 근대 전환기 한국에서 ‘工藝(공예)’라는 용어의 의미가 변화하는 과정을 문헌을 통해 고찰한다. 근대 이전의 용례는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개항 후 중국과 일본을 통해 번역됐을 때 달라지는 각각의 의미는 1882년 조선과 미국이 체결한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 외에 『승정원일기』, 『각사등록』 등의 사료와 통감부 문서(1904~1910년), 주한일본공사관 기록(1894~1908년), 1910년 이전에 발간된 잡지와 신문을 대상으로 ‘공예’라는 용어가 어떻게 쓰였고 변화하게 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공예’의 의미는 개항 이후 각기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종사하는 일·직분이라는 넓은 범위에서 제조업·공업과 같은 산업의 한 분야를 나타내는 범위로 좁혀진다. 새로운 의미로 쓰인 ‘공예’라는 단어는 동아시아 국가 중에 가장 먼저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을 본받아 서구의 문물을 수용하고 산업을 일으키자는 문맥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개항과 더불어 산업화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새로운 개념을 표현할 용어가 필요해지자 일본이 서양의 개념을 번역하여 조어한 한자어를 기표 그대로 수입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공예’는 ‘공업’과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혼용되었다. 그러나 한일합병 후 총독부의 문화정책을 통해 미술로서의 개념이 부여되면서 ‘공예’는 공업으로부터 분화하게 된다. 이와 같이 용어와 개념의 성립을 살펴보는 작업은 한국 공예가 안고 있는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개념어로서의 공예, 미술공예, 공업, 근대 일본의 번역, 한국 근대 공예

투고일자 2021. 06. 30. ● **심사일자** 2021. 07. 14. ● **게재확정일자** 2021. 07. 29.





I. 머리말

근대어 성립 과정에 대한 고찰은 곧 근대 자체의 개념사가 될 수 있다.¹ 근대에 '공예'라는 용어가 성립된 과정을 추적하는 작업을 통해 공예의 개념사를 이해하고, 한국 공예가 껴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공예 용어의 성립에 대한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집중되어왔다(최공호 2003; 최공호 2011; Boyoon Her 2014; 노유니아 2020). 이 글에서는 개항을 전후한 근대 전환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근대 이전부터 사용되던 '공예'라는 기표가 개항 이후 어떻게 변화해가는지, 그 초기 용례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문헌을 통해 고찰할 것이다.

개항 이전부터의 용례는 『조선왕조실록』²(이하 '실록')을 중심으로, 개항 후 중국과 일본을 통해 번역됐을 때 달라지는 각각의 의미는 1882년 조선과 미국이 체결한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 외에도 『승정원일기』, 『각사등록』 등의 사료와 통감부 문서(1904~1910년), 주한일본공사관 기록(1894~1908년), 1910년 이전에 발간된 잡지와 신문을 대상으로 '공예'라는 용어가 어떻게 쓰였고 변화하게 되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검색 도구로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와 국립중앙도서관의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한국 역사정보통합시스템 등 인터넷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하였다.

II. 실록(實錄)에 나타난 '공예'의 의미 변화

근대 이전에 '공예(工藝)'라는 용어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문어적으로는 '일', '기술', 혹은 '기술을 다루는 관직이나 직분'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 같다. 실록에서 '공예'의 가장 이른 용례는 중종 32년(1537) 중종과 대신들이 희릉을 옮기는 일에 대해 논의하다가 나라의 기예가 정밀하지 못함을 지적하는 대목에서 등장한다.³

은갖 공장(工匠)의 기에도 정통하지 못함이 지금 같은 때가 없었습니다. 천문학 같은 것은 관원들이 단지 보천가(步天歌)만 외워서 전최(殿最)와 고강(考講)에 대비하고 녹 받을 피만 하고 있습니다. (중략) 화공들도 모두 구차하게 형용만 만들어 요행히 녹만 먹으려 할 뿐 본시 그림 그리는 일에는 힘쓰지 않았습니다. **이로 본다면 공예를 관장하는 각사의 제조(提調)는 모름지기 조금이나마 기예를 아는 사람으로 하여 감독하게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以是見之, 掌工藝各司提調, 須以稍解披藝者爲之, 而監督之似當)**⁴ [* 현대어는 국사편찬위원회의 번역을 따랐으며, 강조 표시는 필자. 이하 모두 같음.]

이때의 '공예'는 천문학과 화업 등을 포함하여 조정의 각 관청에 고용된 관원들이 담당하는 각종 기술, 혹은 그 기술을 담당하는 직분을 가리키고 있어 오늘날의 공예 개념보다는 더 넓게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종 32년(1537)과 선조 37년(1604)에 각각 한 번씩, 단 두 번만 사용됐던 '공예'가 고종대에 5건, 순종대에

1 마루야마 마사오·가토 슈이치 저, 임성모 역, 2000, 『옮긴이의 말』, 『번역과 일본의 근대』, 이산, p.225.

2 본고에서는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을 모두 포함하여 지칭한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3 『성종실록』 140권, 성종 13년(1482) 4월 15일 두 번째 기사 <대사헌 채수가 내시의 폐해, 해청의 일, 역관·외관의 분수 등의 일을 상소하다>를 '공예' 용어의 출처로 제시된 적이 있으나, 실록의 원문에는 '공예'라는 기표가 사용되지는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국문 번역을 참고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가 아닐까 생각된다. 물론 '공예'라는 표기가 쓰이지 않았다고 해서 비슷한 의미를 가진 어휘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백공(百工)'이나 '백공기예(百工技藝)'와 같은 한자어 외에 '성녕'과 같은 우리말도 사용되고 있었음이 선행연구를 통해 지적되고 있다(최공호, 2013, 『工藝 용어의 근대적 개념 전개』, 『미술사학』 제17호, 한국미술사교육학회, p.134).

4 『중종실록』 84권, 중종 32년(1537) 4월 25일 첫 번째 기사 <대신들과 희릉 장인을 감독하는 문제 등에 대해 의논하다>.

1건으로, 개항 이후 빈번한 용례를 보이고 있다(표 1). 그 중 가장 이른 것은 1882년 미국과 체결한 조미수호통상 조약(이하 '조미조약')의 조문이 그대로 실록에 실린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전문 14개조로 구성된 이 조약은 미국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치외법권을 허용하는 등 불평등한 요소를 담고 있는데, 이후 영국·독일 등의 구미 제국과의 조약을 맺을 때 준용되었다. 이 조약의 제10관

에 '공예'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양국의 관원과 상인이 상대방 국가에서 통상 지방에 거주할 때에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때 관원과 상인이 종사하는 자기 직분 내의 '일'을 '공예'라고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조문은 1899년 청과 맺은 한청수호통상조약(이하 '한청조약')에도 다시 한 번 등장하여 실록에 그대로 실렸다.

표 1 실록에서 찾은 '공예'의 용례

출전	제목
	원문
	현대어 (국사편찬위원회 현대어 번역)
『중종실록』 84권, 중종 32년(1537) 4월 25일 癸酉 첫 번째 기사	대신들과 희릉 장인을 감독하는 문제 등에 대해 의논하다 以是見之, 掌工藝各司提調, 須以稍解披藝者爲之, 而監督之似當.
	이로 본다면 공예(工藝)를 관장하는 각사의 제조(提調)는 모름지기 조금이나마 기예를 아는 사람으로 하여 감독하게 하는 것이 합당할 듯 합니다.
『선조실록』 173권, 선조 37년(1604) 4월 19일 己亥 첫 번째 기사	제주 구황 여사 조성립이 방물의 경감을 요청하다 工匠官案, 取來照數, 則雜色匠人之數, 多至二百六十餘人, 而分三番立役. 卽令色吏, 率時方立役匠人, 使之入庭, 飢餒羸黃, 鬼魅其形, 而手不置工藝之器者, 六十餘人.
	공장에 대해서도 관안(官案)을 가져다가 인원수를 대조해보니 잡색장인(雜色匠人)들의 수가 260여명이나 되었는데, 삼번(三番)으로 나누어 입역(立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색리(色吏)를 시켜 현재 입역하고 있는 장인들을 마당으로 불러 모으게 했는데, 굶주림으로 파리하고 부황(浮黃)이 들어 마치 귀신과 같은 몰골이었으며, 손에 공예 기구를 들지 않은 자가 60여명이나 되었습니다.
『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1882) 4월 6일 辛酉 세 번째 기사	조미조약을 체결하다 第十款, 凡兩國官員, 商民, 在彼此通商地方居住, 均可僱請各色人等, 勤執分內工藝.
	제10관 : 양국 관원과 상인이 피차 통상 지방에 거주할 때에는 다같이 각색의 사람들을 고용하여 자기 직분 내의 일을 돕게 할 수 있다.
『고종실록』 22권, 고종 22년(1885) 1월 16일 丙辰 두 번째 기사	학교와 군사 등의 문제에 관하여 조영권이 상소하다 至於農商, 工藝, 醫藥, 算術, 亦各有學校, 隨材而教之, 作成之化, 庶可挽回三代矣.
	농상(農商)·공예(工藝)·의약(醫藥)·산술(算術) 같은 것에도 각각 학교를 두어 재능에 따라 가르친다면 인재의 배양이 거의 삼대(三代)를 만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1895) 3월 10일 辛巳 첫 번째 기사	내무이문에서 각 도에 제반규례를 훈시하다 第四十三條, 各里諸民의 産業을 營하는 것과 工藝를 一查明하고 奸猾遊食하는 民을 法을 設하여 禁斷하는 事.
	제43조 : 각 동리의 모든 백성들이 경영하는 산업(產業)과 공예(工藝)를 하나하나 조사하여 밝히고 놓고 먹는 간소한 백성을 법을 세워 금지시킬 것.
『고종실록』 39권, 고종 36년(1899) 9월 11일 陽曆 네 번째 기사	한청통상조약이 체결되다 第十一款, 凡兩國官員商民, 在彼此通商地方居住, 均可僱請各色人等, 勤執分內工藝.
	제11관 : 무릇 양국의 관원과 상인이 피차의 통상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모두 각색 사람들을 고용하여 직분 내의 공예(工藝)를 돕게 할 수 있다.
『고종실록』 48권, 고종 44년(1907) 1월 15일 陽曆 첫 번째 기사	민영회가 상소를 올려 교육을 발전시킬 것을 아뢰다 西人所以富強於天下, 誇雄於一世者, 其道靡他, 實在教育人民, 男女無不歸學而已. 由是其智慮日長, 工藝日興, 政治法律, 理財足兵, 靡不刷新發達, 能化弱爲強, 回亡爲存. 其在東洋則日本先覺乎此, 孳孳以教育爲務, 故三十四年之間, 卒能致如彼之強.
	세상에서 서양 사람들이 부강하고 뛰어난 까닭은 그 방도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백성들을 교육하여 남녀 모두가 배우지 않은 사람이 없는 데에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지려(智慮)가 날로 자라고 공예(工藝)가 날로 흥기하여 정치·법률·재정을 다스리는 것, 군대를 많이 보유하는 것 등 쇠신하여 발달하지 않는 것이 없어서 약한 것을 강하게 하고 망하는 것을 보존하게 합니다. 동양(東洋)에서는 일본(日本)이 먼저 이것을 깨닫고 부지런히 교육에 힘썼기 때문에 30~40년 동안에 저렇듯 갑자기 강해졌습니다.
『순종실록』 3권, 순종 2년(1909) 12월 4일 陽曆 첫 번째 기사	일진회장 이용구가 한일합병 성명서를 발표하다 日韓의 關係가 已히 密接함에 感情을 融和하고 工藝를 師受하며 文明의 模範을 寸取尺進할 것이어늘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이미 밀접해졌으니 감정을 풀고 기술을 배우며 문명의 모범을 점차 조금씩이라도 받아들여야 하겠는데



후자의 경우 국사편찬위원회 현대어 번역에서는 그대로 '공예'로 표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두 조약의 조문은 완벽히 일치하며 한청조약의 조약문에서도 '공예'가 의미하는 바는 관원과 상인이 종사하는 자기 직분 내의 '일'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쓰임은 앞서 살펴본 중종대의 용례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고종·순종대의 실록에 보이는 공예의 다른 용례에서는 그 의미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난다. 고종 22년(1885) 조영권이 올린 상소에서 공예는 농업, 상업, 의학, 제약, 산술 등의 다른 분야와 나란히 쓰여 공예에 해당하는 범위가 이전보다 좁아진 것이 보인다. 사농공상 중 공(工)에 해당하는 계급이 종사하던 수많은 기술 분야를 총괄하여 쓰이던 것에서, 주로 기계를 이용한 '제조업'만을 한정하여 의미하게 된 것이다. 그 외에도 1907년 민영희가 올린 상소나 1909년 이용구가 발표한 한일합병 성명서에 '공예'가 쓰인 용례가 등장하는데, 생산이나 제조와 관련된 기술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렇게 근대화를 위한 개혁을 도모하는 내용이나, 조선보다 앞서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의 사례를 설명할 때 쓰인 '공예'는 조약문에서 한어(漢語)로 쓰인 '工藝'와는 그 의미가 달라져 현대의 '공업'에 가까운 의미로 쓰이게 된 것이다.

한편 실록에서 '공업(工業)'의 가장 이른 용례는 영조 17년(1741) 3월 18일 기사이다. 그런데 이 당시의 공업은 '오랫동안 성균관에서 유학(遊學)하면서 공업(工業)을 익힌다'⁵는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오늘날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공업'은 고종대에 이르러서도 오랫동안 '학업을 연마'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⁶ 실록에서 '공업'이 오늘날의 공업과 같은 의미로 사용

되기 시작한 것은 1895년 농상공부 관제를 반포하면서부터였다.

農商工部官制: 第一條, 農商工部大臣은 農業, 商業, 工業, 郵遞, 電信, 鑛山, 船舶, 海員等에 關한 一切事務를 管理함.⁷

농상공부대신의 임무는 농업, 상업, 공업, 우편, 전신, 광산, 선박, 해운 등에 관한 사무 일체를 관리하는 것으로 정해졌는데, 여기에서 '공업'은 농업·상업과 나란히 쓰임으로써 여러 산업 분야의 하나로서 '제조업'을 의미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한편 『승정원일기』에서는 정조대부터 조금 더 많은 '공업'의 용례를 찾아볼 수 있으나, 실록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업을 연마'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가 고종 39년(1902)에 이르러 처음으로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용례가 발견된다. 이 역시 조정의 사무 분장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이덕선(李德善)을 내장원 공업과 기사(內藏院工業課技師)에 임용"한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오늘날과 같은 의미를 지닌 '공업'이라는 용어는 고종의 근대화를 위한 개혁 시도와 맞물려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록에 쓰인 '공예'와 '공업'의 용례를 통해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낼 수 있다. 첫째는 '공예'와 '공업'의 의미는 개항 이후 일어난 근대화 시도와 함께 변화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는 '공예'와 '공업'이 각각 농업·상업 등과 나란히 산업의 한 분야를 지칭하는 데 쓰였으며 두 단어를 서로 바꾸어 써도 될 정도로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5 上之親試講儒也, 有一儒入講席, 自書不通而退, 上怪之, 問諸臣曰: "渠以入格者數多, 講亦無益云爾, 則無足怪也, 不然而欲久遊庠學, 習其工業, 恬然無進取之心, 則是可責也" 『영조실록』 53권, 영조 17년 3월 18일 두 번째 기사 <원경하가 과거에 합격한 인재를 임용하지 않는 폐단을 참다운 탕평의 도를 아리다>.

6 邇來科弊, 誠痛矣. 爲士子者, 初不肄習工業, 惟事鑽刺; 爲試官者, 亦不顧念對揚, 惟視干瀆 『고종실록』 21권, 고종 21년 7월 17일 첫 번째 기사 <각 도의 관찰사에게 시관을 각별히 선발하도록 신칙하다>; 課式則欲有漸次, 工業則欲其博通 『고종실록』 30권, 고종 30년 3월 20일 첫 번째 기사 <근정전에 나아가 양로연 외연을 행하다> 등 고종 30년(1893)까지 '공업'은 '학문을 연마함',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7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3월 25일 열두 번째 기사 <농상공부 관제를 반포하다>.

III. 번역어 ‘공예’의 도입 -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중심으로

앞 장에서 실록을 통해 개항 이후 ‘공예’가 제조업·공업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산업의 의미로 확장된 근대적 공예 개념이 우리 내부에서 전승된 것인지, 일본에서 유입된 것인지가 확실치 않다고 판단을 유보하는 입장을 취하며, 근대기 공예 용어가 일본에서 들어왔더라도 용어의 수용이 아닌 근대적 개념의 수용이라고 보았다(최공호 2011: 29). 하지만 정치·경제·교육·사법 제도의 틀뿐만 아니라 근대 학문의 용어와 체계가 일본을 통해 받아들여졌던 상황에서(이한섭 2012: 32~34) 공예에 한해서만 별개로 간주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 게다가 ‘공예’가 가지는 의미가 공업·산업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다가 공업에서 분화되어 미술의 한 장르로 정착하는 양상이 두 나라에서 시차는 있되 유사하게 나타난 것을 감안하면, 근대 일본이 ‘공예’라는 자리에 다른 한자 조어를 사용했을 경우 한국에서도 그 조어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즉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공예’라는 용어는 개항기 이후 일본을 통해 들어온 번역어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한 좋은 예로 앞 장에서도 언급한 조미조약의 조문을 들 수 있다. 조미조약은 1876년 일본과 소위 강화도조약을 맺고 개항한 이래 서구 열강과 맺은 최초의 조약으로, 원문은 한문과 영문 두 언어로 쓰였다. 그 중 ‘공예’가 등장하는 제10관의 일부를 보자.

第十款, 凡兩國官員, 商民, 在彼此通商地方居住, 均可僱請

各色人等, 勤執分內工藝. 唯朝鮮人遇犯本國例禁, 或牽涉被控, 凡在美國商民寓所行棧及商船隱匿者, 由地方官照知領事官, 或准差役, 自行往挈, 或由領事, 派人拿交, 朝鮮差役. 美國官民不得稍有庇縱措留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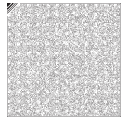
ARTICLE X. The officers and people of either nation residing in the other, shall have the right to employ natives for all kinds of lawful **work**. (후략)⁹

한문의 ‘工藝’에 대응하는 영문에는 ‘work’가 사용되고 있다. 이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현대어 번역 ‘일’과도 일치하는 단어로, 조미조약에서 쓰인 ‘공예’의 의미는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 종사하고 있는 ‘일’, 즉 제조업이나 공업에 한정하지 않고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조미조약 체결 당시 청국이 일본을 견제하고자 초안 작성에 직접 개입하였던 점과 조약의 조선 측 원문이 한문(중국어)으로 쓰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조약에 쓰인 ‘공예’는 일본을 경유한 번역어 ‘공예’와 같은 단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근대 이전에 실록에서 쓰였던 것과 같은 한어에 가까운 것이라 보인다.

그런데 조미조약과 관련된 또 다른 ‘공예’의 용례가 있다. 이것은 일본어 번역을 거친 ‘공예’ 기표로, 한문으로 쓰였던 ‘공예’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조미조약의 체결로 1883년 4월 미국 초대 공사료 푸트(Lucius H. Foote)가 부임하여 5월 19일자로 비준서(批准書)를 교환하고, 조선 정부에서도 같은 해 6월 민영익(閔泳翊)을 전권대신으로 하는 보빙사 일행을 미국에 파견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보빙사 일행이 받아 온 체스터 아서(Chester Alan Arthur, 1881~85 재임) 미국 대통령의 답신이다.

8 제10관 : 양국 관원과 상인이 피차 통상 지방에 거주할 때에는 다같이 각색의 사람들을 고용하여 자기 직분 내의 일을 돕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선 사람으로서 본국의 금령을 범했거나 피소(被訴)된 자와 연루되어 미국 상인의 주택·창고 및 상선에 숨어 있는 자는 지방관이 영사관에게 통지하여 역원(役員)을 파견하여 직접 잡아가거나 영사가 사람을 파견하여 붙잡아 조선에서 파견한 역원에게 넘겨주어야 하며, 미국 관원과 백성은 조금이라도 비호하거나 억류할 수 없다. [국사편찬위원회의 현대어 번역]

9 THE UNITED STATES-KOREA TREATY OF 1882 FINAL VERSION. <http://www.instrok.org/instrok/resources/Draft and Final Versions.pdf> (2020.6.23. 최종 접속)



“余接大朝鮮國大君主及政府派來之使臣不勝忻悅也問大來此平安余熟知貴國疆土之美海環三面形成半島百姓所有土產工藝亦皆知之至于人丁之衆勝於我合衆國獨立時三倍之多也我兩國上隔大洋非不搖遠有輪船可保往來無難是貴國即我比隣而係一妥當通商之大道也(후략)”¹⁰

그렇다면 과연 아서 대통령의 어떤 단어가 공예로 번역된 것일까? 번역되어 들어온 기표 ‘공예’의 원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면 당시 그 단어가 갖고 있던 뜻을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work’나 ‘craft’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미국 외교 관련 문서를 확인한 결과 위 번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Mr. Minister and Mr. Vice-Minister — It gives me much pleasure to receive you as the representatives of the King and government of Tah-Chosun. I bid you a cordial welcome. We are not ignorant of your beautiful peninsular country, with its surrounding islands, or of their productions, or of the **industries** of your people, who in population number more than twice that of the United States when they became an independent nation. The ocean which intervenes between our respective domains has, by means of the introduction and perfection of steam navigation, become a

highway of convenient and safe intercourse — you are our neighbors.”¹¹

아서 대통령이 사용한 원어는 ‘industries’로, 오늘날에는 산업·공업·제조업으로 번역되는 단어이다. 이때 ‘공예’에는 나란히 쓰인 ‘토산(productions)’과 대응하여 인간의 기술에 의해 만들어지는 제조물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된다.

그런데 이 번역은 영어에서 한국어로 직역된 것이 아니라 영어에서 일본어, 그리고 일본어에서 다시 한국어로 재번역되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영어에 능통한 조선인이 없던 상황에서 사절단은 안내 겸 비서 역할을 한 퍼시벌 로웰(Percivall Lowell)이 데리고 갔던 일본인 미야오카 쓰네지로(宮岡恒次郎)¹²의 통역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였다. 1883년 9월 18일 오전 11시 피프쓰 애비뉴 호텔(Fifth Avenue Hotel)에서 있었던 국서 전달식에서 조선의 전권대신 민영익의 한국어 스피치를 수행한 유길준이 일본어로 통역하고, 이를 미야오카가 영어로 통역했으며, 이에 아서 대통령이 영어로 답사하자 미야오카가 이를 일어로 통역하고 유길준은 이를 다시 한국어로 통역하였다.¹³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영어 ‘industries’가 한국의 신문에 ‘공예’로 실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조미조약 체결 당시 번역되어 사용되었던

10 漢城旬報, 1883.12.29., 「大統領答辭」. 나는 대조선국 대군주 및 정부가 보낸 사신을 접견하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바입니다. 貴大臣이 이곳에 오시는 동안 편안하십니까? 나는 귀국의 아름다운 강토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3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반도를 이루고 있고, 백성들과 토산·공예에 대해서도 다 압니다. 귀국은 인구가 우리 합중국에 독립할 때까지만 해도 3배나 더 많았습니다. 우리 두 나라는 대양을 사이에 두어 멀지 않다고는 할 수 없으나 윤선이 있어 어려움 없이 왕래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귀국이 바로 우리 이웃으로서 통상할 수 있는 큰 길목으로서 합당하기도 합니다. (후략)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의 현대어 번역]

11 Document No.115, President Arthur's address to the representatives of Tah-Chosun, Papers Relating to th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transmitted to congress, with the annual message of the president, December 4, 1883, p.249.

12 1865년 출생. 도쿄영어학교 출신으로 이미 12세의 나이에 어니스트 페놀로사(Ernest Francisco Fenollosa)의 통역을 맡는 등 영어에 능통했다. 1882년 동경제국대학 법학부에 입학하였으나, 이듬해 휴학하고 퍼시벌 로웰을 따라 조선보빙사에 통역으로 수행하였다. 유길준·윤치호 등과도 친분이 깊었다.

13 보빙사는 영어를 잘 하는 조선인 통역관을 구하지 못하자 중국인 통역관 우리탕(吳禮堂)과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조선인 고영철(高永喆)을 대동하여 영어↔중국어↔한국어의 순으로 의사소통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안내역을 담당할 퍼시벌 로웰이 일본인 통역관 미야오카 쓰네지로를 대동하자 그에게 실제 통역을 맡게 하였다. 조선인 수행단원 8명 중 5명이 일본 유학 등의 경험으로 일본어에 능통했기 때문이다(이한섭, 2009, 「개화기 외교 현장에서의 통역 문제 - 1883년 派美 사절단의 예를 중심으로」, 『일본어학연구』 제25호, pp.175~194).

‘공예’의 용례와 원어를 확인한 결과, 중국을 거쳤으나, 일본을 거쳤느냐에 따라 ‘공예’라는 하나의 기표(signifiant)가 다른 기의(signifié)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기존의 한자어 ‘공예’가 의미하던 ‘work - 일, 직분’과 같은 의미에서, 일본어로부터의 번역을 거쳐 ‘industry - 공업, 제조업’과 같은 의미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그림 1 보빙사 일행(왼쪽에서 두 번째가 퍼시벌 로웰, 그 오른쪽 뒤에 서 있는 남성이 일본인 통역관 미네오카 쓰네지로)

IV. 개항 후 국가적 과제가 된 ‘공예’

이제 더 많은 사료를 통해 ‘공예’의 용례를 살펴보자. 조미조약이 체결된 즈음인 1880년대 초반부터는 여러 사료에서 공통적으로 ‘공예’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기 시작한다.

먼저 주한일본공사관 기록과 통감부 문서에서는 ‘공예’가 모두 14건 검색된다. 여기서 도출되는 ‘공예’의 의미는 모두 공업에 가깝다. 이 서류들은 모두 일본인 관료가 작성한 서류들이므로 이 시기에 일본에서 ‘공예’가 부국강병을 위해 일으켜야 했던 산업, 즉 식산흥업의 맥락에서 사용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1945년 이전에 발간된 한국 근현대 잡지 자료]에

서 ‘공예’를 입력하면 모두 153건이 검색되는데, 이 중 대한제국기에 해당하는 1897년부터 1910년 사이에 나온 기사가 전체 기간의 절반 가까이에 달하는 70건이나 된다. 분량상 모두 인용할 수 없지만 대부분은 자강, 공업, 산업, 흥업 등과 연관된 내용으로, 당시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국권을 회복하려는 의지로 일어났던 자강개혁사상, 애국계몽운동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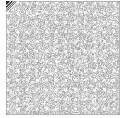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근현대 신문 자료]와 국립중앙도서관의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를 이용하여 1883년부터 1910년 한일합병 전까지의 신문 기사에서 ‘공예’로 검색하여 도출된 총 300여 건의 기사에서 ‘공예’가 어떤 문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¹⁴ 대상이 된 신문은 <한성순보>, <한성주보>, <독립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문> 등이다. 이들 기사에서 쓰인 ‘공예’ 역시 ‘공업’이나 ‘산업’ 등으로 대체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지면의 제약상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급진개혁파에 의해 창간된 <한성순보>와 그 뒤를 이은 <한성주보>에서는 ‘공예’ 용어가 주로 일본과 서구의 문물과 교육 제도를 설명할 때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증기기관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공예의 발달을 논하거나, 유럽의 제도를 모방하여 도쿄에 설립된 직공학교의 과목 구분이 ‘화학공예’, ‘기계공예’ 등으로 구분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서기 1700년 영국에 瓦德(와트)이란 자가 처음으로 증기기관을 試製하여 시험하였고, 그 후 100여년 동안 각국 사람들이 더욱 정밀하고 교묘하게 연구하여 마침내 세상에 크게 쓰이게 되어 모든 工藝에 이것을 쓰지 않고 제조되는 것이 없다.¹⁵

14 신문 기사에 사용된 ‘공업’의 경우 1880년부터 1900년까지 총 225건, 1901년부터 1910년까지 사이에는 총 2,238건이 검색된다. 검색 건수는 추후 데이터베이스의 추가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공예’에 비해 ‘공업’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자주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15 漢城旬報, 1884.9.10, 「火輪船 速力說」.



직공학교는 工藝에 중사하는 자들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반드시 그 학교에 들어가 혹은 工藝를 감독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혹은 스스로 工藝를 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한다. 그러므로 모든 工藝가 날로 진보하고 있는 것이다. 근일 일본에서도 직공학교를 신설하여 특별히 工藝를 진작하기를 꾀한다고 한다. 이제 그 학교의 규칙을 번역하여 아래에 실으니 時務家들은 참고하기 바란다.

東京職工學校規：◇ 본교의 설립 목적 제1조：본교는 특별히 제반 工藝教師를 두어 생도를 가르치고 졸업하게 되면 직공학교의 교원에 임명하거나 혹은 製造局의 長이 되게 한다. (중략) 제3조：본과를 둘로 나누어 하나는 化學工藝科로, 하나는 機械工藝科로 하는데 반드시 학생의 선택에 의해 학습한다.¹⁶

3학년은 化學工藝와 機械工藝의 구별이 있는데 학생으로 하여금 그 중 하나를 獨學하게 한다. 化學工藝는 학과가 모두 11門이 있는데 아래와 같다.

무기화학·유기화학·분석화학·응용화학·重學·書學·職工經濟學·簿記學·實地講習·修身學.

機械工藝는 학과가 모두 13門인데 아래와 같다.

수학·物質強弱論·手操工具論·機巧工具論·發動機論·重學·書學·製造所用器械論·工場用圖·職工經濟論·修身學·簿記學·實地講習.¹⁷

특히 <황성신문>은 논설에서 부국강병의 시급함을 논하면서 '공예'라는 단어를 빈번히 사용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다음 기사에서는 공예를 농업, 상업, 화폐, 광산업 등과 함께 나열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루마니아와 멕시코 등 외국의 학제를 설명하는 기사에서는 중등전

문학교의 각 분야를 열거하면서 교육학, 법률, 의학, 기공학, 광학, 미술, 농업, 상업, 음악 등과 함께 공예가 등장한다. 어느 기사에서는 '공예'는 부국을 위해 힘써 발달시켜야 할 분야로 설명되고 있다.

校教育之務를 不得不開擴也며 軍事戰守之費를 不得不預籌也며 其他如農事之改良과 工藝之發達과 商務之振興과 貨幣之整理와 鑛產之開採等의 諸凡利用厚生之方에 不得不另着手腕則宜其所入經費도 亦必要鉅大之額矣리니 以從前賦稅之入으로는 必未免窘絀之患則財政措辦之道를 亦不得不講究也어니와 但其規模未備하고 法令不均하야¹⁸

羅馬尼亞國은 小學校가 四千三十五오 墨西哥國은 小學校가 六千七百三十八이오 各市設立이 二千九百五十三이오 私立及教會小學校가 二千六百六十七이오 海陸軍이 各一이오 中等專門學은 有教育學, 法律, 醫學, 機器學, 鑛學, 美術, 農業, 商業, 工藝, 音樂 等學校고 圖書館이 百二十九오 博物館이 三十二오¹⁹

1909년의 시점에 이르면 “現今 我韓에 政治家 法律家 事業家 工藝家가 無不緊要하지만은 最急者는 教育家라”²⁰와 같이 정치가, 법률가, 사업가, 교육가와 함께 공예가(工藝家)라는 용어가 직업의 명칭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당시 공예의 의미가 오늘날의 공업에 가까웠던 것을 생각하면 공예가 역시 제조업이나 기계업과 같은 공업 분야에 중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근대 전환기에 새로운 의미로 쓰인 '공예'라는 단어는 '동아시아 국가 중에 가장 먼저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을 본받아 서구의 문물을 수용하고 산업을 일으키자'는 문맥에서 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 漢城旬報, 1884.7.3, 「職工學校規則」.

17 漢城周報, 1886.2.15, 「論學政第三」.

18 皇城新聞, 1902.11.28, 「先究安民然後加結無獎(續)」.

19 皇城新聞, 1905.6.6, 「勸告學校之設立(四)」.

20 皇城新聞, 1909.7.17, 「權迎張膺震君」.

개항과 더불어 산업화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새로운 개념을 표현할 용어가 필요해지자 일본이 서양의 개념을 번역하여 조어한 한자어를 기표 그대로 수입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한자권에 속한 일본 역시 중국 문헌의 ‘공업’과 ‘공예’라는 기표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던 용어는 아니었다. 일본에서는 ‘공업’과 ‘공예’가 모두 메이지기에 서양 문물을 번역하기 위해 새로이 조어된 용어였으며, 초기에는 이 둘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없이 혼용되었다(三好 2013: 50). 예를 들어 1885년 9월 도쿄대학에서는 실용응용계열이 이학부로부터 분리되어 오늘날의 공업대학에 해당되는 공예학부가 설치되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전공은 화학과 응용화학전공, 채광치금학과, 공학과(토목전공, 기계전공, 부속 조선학교실 포함)였다. 한편 1881년 개교한 도쿄직공학교는 1890년 도쿄공업학교로 이름을 바꾸는데, 같은 해 개정된 학과의 명칭은 화학공예부(염색공과, 도기유리공과, 응용화학과)와 기계공예부(기계과, 전기공업과)였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어들 중에는 근대 일본이 서구의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한자로 조어하여 만든 번역어를 한자 기표 그대로 도입하여 사용한 것이 많은데 ‘공예’와 ‘공업’도 예외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근대 이전 각각 ‘일이나 직분’, ‘학문을 연마함’이라는 의미로 드물게 사용되던 한자어였던 ‘공예’와 ‘공업’은 근대 전환기 식산흥업을 통한 서구화·근대화가 요구되는 국면을 맞아 제조업 전반을 가리키는 말로 혼용되었던 것이다.²¹

V.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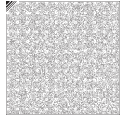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공예’라는 용어의 쓰임을 근대 전환기의 여러 문헌을 통해 고찰해보았다. 시간과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근대 전환기의 모든 문헌을 다 분석할 수는 없으나 국가의 공식적인 기록과 문서, 신문과 잡지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여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예’의 의미는 개항을 겪으며 각기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종사하는 일·직분이라는 넓은 의미에서 제조업·공업과 같은 산업의 한 분야를 나타내는 범위로 좁혀진다. 새로운 의미로 쓰인 ‘공예’라는 단어는 동아시아 국가 중에 가장 먼저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을 본받아 서구의 문물을 수용하고 산업을 일으키자는 문맥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개항 직후 ‘공예’는 식산흥업의 맥락에서 국가적 과제로 제시되고 있었다. 개항과 더불어 산업화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새로운 개념을 표현할 용어가 필요해지자 일본이 서양의 개념을 번역하여 조어한 한자어를 기표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한 것이다. ‘공예’는 ‘공업’과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혼용되었다.

근대 전환기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제조업 전반을 아우르는 용어로 쓰이던 ‘공예’는 산업화 이후 기계제 생산의 발달로 인해, 또한 한일합병 후에는 총독부의 문화정책을 통해 미술로서의 개념이 부여되면서 점차적으로 ‘공업’과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사람이 만드는 영역, 미적 감각을 중시하는 영역으로 한 번 더 그 범위가 좁혀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대에 통용되고 있는 ‘공예’의 정의는 ‘1) 물건을 만드는 기술이나 재주, 2) 기능과 장식의 양면을 조화시켜 직물, 염직, 칠기, 도자기 따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일’²²이다. 또한 회화, 조각, 건축, 디자인 등과 같

21 그러나 기계가 인간의 손을 대체하는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공예’와 ‘공업’은 분리되기 시작한다. 근대 전환기에 도입된 개념이 오늘날까지 거의 그대로 변하지 않고 쓰이고 있는 공업과 달리 공예는 미술 개념과 결합하면서 또 한 번 의미의 변화를 겪게 된다. 1900년대가 되면 ‘미술공예’ 혹은 ‘공예미술’이라는 용어가 신문지상에 등장하기 시작하고, 한일합병 후에는 조선총독부의 고적 조사와 잇따른 역사 편찬, 문화재 제도 정비, 박물관과 미술관, 조선미술전람회 등을 통해 미술로서의 공예 개념이 대중에 확산되었다. 더 자세한 것은 노유니아, 2020, 앞의 논문 참조.

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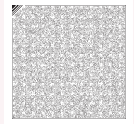


이 조형미술의 한 장르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근대부터 현대까지 '공예' 용어의 의미 변화를 보다 종합적이고 통시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추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 본고는 필자의 박사 논문인 「韓國における工藝の成り立ち—朝鮮總督府の文化政策との關係を中心に—」(도쿄대학 인문사회계연구과, 2019)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참고문헌

- 漢城旬報, 1883.12.29, 「大統領答辭」.
- 漢城旬報, 1884.7.3, 「職工學校規則」.
- 漢城旬報, 1884.9.10, 「火輪船 速力說」.
- 漢城周報, 1886.2.15, 「論學政第三」.
- 皇城新聞, 1902.11.28, 「先究安民然後加結無獎(續)」.
- 皇城新聞, 1905.6.6, 「勸告學校之設立(四)」.
- 皇城新聞, 1909.7.17, 「權迎張膺震君」.
- Document No.115, President Arthur's address to the representatives of Tah-Chosun, Papers Relating to th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transmitted to congress, with the annual message of the president, December 4, 1883.
- 노유니아, 2020, 「공예라는 전통과 캐논의 성립 : 고미술과 미술공예」, 『문화재』 제53권 제3호, 국립문화재연구소, pp.128~141.
- 이한섭, 2009, 「개화기 외교 현장에서의 통역 문제 - 1883년 派美 사절단의 예를 중심으로」, 『일본어학연구』 제25호, 한국일본어학회, pp.175~194.
- 이한섭, 2012, 「근대어 성립에서 번역어의 역할 - 일본의 사례」, 『새국어생활』 제22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pp.32~34.
- 마루야마 마사오·가토 슈이치 저, 임성모 역, 2000, 『번역과 일본의 근대』, 이산, p.225.
- 최공호, 2003, 「『工藝』 용어의 근대적 개념 전개」, 『미술사학』 제17호, 한국미술사교육학회, pp.133~158.
- 최공호, 2011, 「공예(工藝), 모던의 선택과 문명적 성찰 : 용어 사용 이후의 위기와 어젠더」,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22집,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p.29.
- 三好信浩, 2013, 『納富介次郎(佐賀偉人伝)』, 佐賀県立佐賀城本丸歴史館, p.50.
- Boyoon Her, 2014, 'The Formation of the Concept of Gong-ye in the Korean Modern Age', *Journal of Design History* Vol.27 No.4, Oxford University Press, pp.335~350.
- 국립국어원 표준대국어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https://nl.go.kr/newspaper>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 THE UNITED STATES-KOREA TREATY OF 1882 FINAL VERSION <http://www.instrok.org/instrok/resources/Draft and Final Versions.pdf>



A Literary Study on the Changes in the Meaning of *Gongye* During Korea's Transition to the Modern Era

ROH Junia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junias00@snu.ac.kr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rocess of change in the meaning of the term *gongye* (工藝) (nowadays it means craft) during Korea's transition to the modern era.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朝鮮王朝實錄) will serve as the basis for the examination of pre-modern usage, and the Korea-United States Treaty of 1882 for the changes that occurred between the translation from Chinese and from Japanese following the opening of the port.

After the port opened, the meaning of *gongye*, which once broadly referred to the wide range of work of people from different fields, was narrowed down to singularly represent the manufacturing industry. Following the example of Japan, the first East Asian country to succeed in modernization, this new meaning of *gongye* was generally used in the context of embracing Western culture and creating industry. As industrialization emerged as a national mission, and new terminology was needed to express these new concepts, the Chinese characters used by the Japanese to translate Western concepts were directly imported and used without making any changes.

Gongye was similar in meaning to *gongeop* (工業) (nowadays it means industry) at the time, and the two terms were used interchangeably. However, following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the cultural administration of the Governor-General imbued the term with artistic concepts, and *gongye* was differentiated from *gongeop*. As such, examining the establishment of terminology and concepts can be helpful for understanding the contradictions and problems of the Korean crafts scene, which were derived from a period in the past called the modern era.

Keywords *gongye* (craft) as a terminology, craft as art, *gongeop* (industry), translation of Meiji period, Korean modern craft

Received 2021.06.30. • Revised 2021.07.14. • Accepted 2021.07.29.

